

# 주간 테러동향

## Weekly Terrorism Trends

'19. 1. 4(금)

###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 유럽

- 스웨덴, ISIS 자금지원 및 테러모의 혐의로 6명 기소
  - 12.28 스웨덴 검찰은 ISIS에 테러자금을 지원하고, 살상용으로 사용 가능한 다량의 화학물질과 관련장비를 취득·보관하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검거한 우즈벡·키르기스스탄 출신자 6명을 기소
- 그리스, 아테네 성당 주변 사제폭탄 폭발로 경찰 등 2명 부상
  - 12.28 그리스 아테네 도심에 있는 성 디오니시오 성당 건물 밖에서 사제폭탄 추정 폭발물이 터져 경찰관 1명 등 2명이 부상
- 英 경찰, '알라' 외친 흥기난동 남성 체포
  - 12.31 英 맨체스터 빅토리아 기차역에서 한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을 포함한 3명이 부상, 목격자들은 同 남성이 '알라'라고 외쳤다고 진술

#### 미주

- 美 국방부, 시리아 철군시 쿠르드 민병대에 무기 이전 방안 추진
  - 12.28. 로이터 통신은 “美 국방부 쿠르드 민병대(YPG)\*에 지원했던 무기를 그대로 넘겨주고 철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할 예정이며, 터키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 쿠르드 민병대는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을 지원하며 시리아내 ISIS 격퇴전에 앞장서 왔으나, 터키는 자국내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 분파 테러 조직으로 규정

## 아 · 태평양

- 태국, 남부지역 분리주의 단체의 연쇄 폭탄·총기 테러공격 발생
  - ‘딥 사우스’(deep south)\*로 불리는 태국 최남단 나라티왓州에서 12.26~28. 15건의 총격·폭탄공격에 이어 12.30 공수부대원 피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반군의 테러 빈발로 보안당국이 검문검색을 강화
  - \* 종교·인종·문화적으로 말레이시아와 가까워 이슬람 반군이 분리독립 분쟁 中
  
- 필리핀, 백화점에서 사제폭탄 터져 2명 사망·최소 32명 부상
  - 12.31 필리핀 남부 코타바토市 소재 백화점에서 사제폭탄이 터져 2명이 사망하고 최소 32명이 다쳤으며, 필리핀 군경은 市 외곽에서 활동 중인 ISIS 추종 과격단체의 소행으로 판단
  - \* 목격자에 따르면, 불상자가 백화점 입구 가판대에 놓은 상자에서 폭발 발생
  
- 인도, 연쇄테러 모의혐의 ISIS 추종단체 체포
  - 인도 국가수사국(NIA)은 지난 12.26 델리와 북부 암로하市 등지에서 정부청사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연쇄폭발 및 자살폭탄테러를 모의하던 ISIS 추종단체를 적발, 용의자 1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 \* 수사당국은 로켓발사기 및 자살폭탄조끼·시한폭탄 부품 등을 압수

## 중 동

- 외교부, 리비아 체류 국민 3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
  - 12.31 외교부 당국자는 여행금지국인 리비아에 체류 중인 국민 13명 중 최근 생계 등 이유로 귀국 거부 의사를 밝힌 3명의 여권을 무효화 하였고, 나머지 10명에 대해 철수할 것을 설득 중이라고 언급
  - \* '18.7.6.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피랍된 후 체류국민 30명에 대해 즉각 철수권고

새해 첫날 터키 나이트클럽 총격 테러

- '17.1.1. 01:45경 터키 이스탄불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괴한 2명의 총기 난사로 39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
  - \* 당시 600~700명의 사람이 새해맞이 파티 중
- 테러범들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채 클럽에 난입하여 경비를 서던 경찰에 먼저 총격을 가한 뒤, 아랍어 구호를 외치며 클럽 안에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
  - 1.16 당국은 은신처를 급습해 5명을 검거하고, 19만7,000달러(약 2억 3,000만원)의 현금과 무기 2정을 압수
  - 총격범인 우즈벡 출신의 「압둘가디르 마샤리포프」는 ISIS 중앙 아시아 지부의 일원으로 확인
    - \* 이스탄불 주지사는 “함께 있던 4명도 테러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이와 관련, ISIS는 터키군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보복이라고 밝히면서, “ISIS의 영웅적인 전사가 기독교인들이 휴일을 기념하는 유명 나이트클럽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배후를 자처

< 최근 터키 대형 테러 일지 >

- (2015) 7.20 터키 남부 수르츠에서 자살폭탄공격으로 최소 30명 사망  
10.10 앙카라역 광장에서 ISIS 추정 자살폭탄테러로 102명 사망(역대 최대)
- (2016) 2.17 앙카라 공군사령부 인근에서 차량폭탄공격으로 29명 사망  
3.13 앙카라 도심에서 차량 자살폭탄테러로 최소 37명 사망  
6.28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자살폭탄테러로 44명 사망·150여명 부상  
8.20 남동부 가지안테프의 결혼식장에서 자살폭탄테러로 51명 사망  
12.20 이스탄불 중심부 축구경기장에서 폭탄테러로 44명 사망·149명 부상
- (2017) 1.1 이스탄불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총격테러로 39명 사망·69명 부상